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조 봉 환†

공주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이들 두 집단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성별,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진로발달의 하위영역 중 학업·직업탐색 영역에서 일반가정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진로발달과 자아개념은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상관 정도가 약간 높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본 결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일반가정 초등학생 모두 학업적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갖는 영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핵심어 : 자아개념, 진로발달, 다문화, 초등학생

---

\* 본 논문은 2009년도 공주교육대학교 해외파견교수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봉환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314-711)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번지 Tel: (041) 850-1726 / E-mail: cho2433@gjue.ac.kr

우리나라 6세~21세의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해 2010년 현재 9,901,000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030년에는 6,163,000명으로 1970년 12,604,000명 이후 6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증가 추세이다. 2009년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24,745명으로 2008년에 비해 31.8% 증가했으며, '05년(6,121명)에 비해서는 4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초등학생이 20,632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등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문미숙, 박창연, 2009; 박상철, 2008; 장인실, 2008; 장인실, 유영식, 2010)와 다문화 교육정책 연구(서범석, 2009)가 있으며, 조영달 등(2006)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대상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안지혜, 강승혜, 2009; 이선미, 이선화, 2009)와 김인(2009)의 초등학교 다문화교육 현황 연구가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위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설문한 결과 '기초교과 지도(27.8%)', '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25.5%)', '한국어·한글교육(9.3%)', '나의 모국어교육(8.2%)', '진학지도(8.0%)', '심리상담(5.6%)',

'기타(15.6%)'로 응답했는데, 이는 교과(기초교과지도, 한글 교육 등)와 경제적인 지원(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을 제외하면 '진학지도'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0). 이재분(2008)의 국제결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녀의 학습지도와 진로지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동양계 미국 청소년들이 진로정보에 대해 무지하여 다양하게 진로선택을 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 직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호 한다는 연구(곽준규, 1994)의 결과와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 일반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김신호, 조봉환, 김옥환, 임경희, 2002; 이영대, 2001)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일반가정 초등학생도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반가정의 초등학생과 다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적은 동남아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발달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예정된 경향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동료, 사회적 가치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이종범, 2005). 진로

발달이론은 인간발달의 개념을 진로지도에 도입한 것으로,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는 입장으로(이재창, 2005), 정철영(1999)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보람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며, 새로운 직업기회와 개인목표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은 초등학교시기에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발달과정으로 자신과 일의 세계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진로인식·탐색·계획과 관련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이중범, 2005). 아동의 진로발달과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이 진로태도의 발달인데, 아동의 자아개념, 성역할, 성취동기, 학업성취도, 자아효능감, 내외통제성 등이 진로태도의 발달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공윤정, 박한샘, 2009).

진로발달 이론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인 자아개념은 초등학교 시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주요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Super, 1963). Super(1963)등은 자아분화, 역할놀이, 탐색, 현실검증과 같은 과정이 자아개념의 발달을 이끈다고 보았는데 학교, 가족, 친구, 동료들과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와 상호작용은 자아개념의 발달을 가져오며, 자아개념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보았다. 김충기(2000)는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높여줌으로써 합리적인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대상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가정 초등학생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두 집단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성별,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과의 상관관계 및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은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셋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방법

### 연구대상

이 연구는 충남과 대전 지역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86명(남: 36명, 여: 50명; 4학년: 28명, 5학년: 27명, 6학년: 31명; 일본: 27명, 중국: 36, 필리핀: 8명, 베트남: 8명, 새터민: 2명; 우즈베키스탄: 2명;

인도네시아: 1명; 몽골: 1명; 미국: 1명), 일반 가정 초등학생이 94명(남: 44명, 여: 50명; 4학년: 33명, 5학년: 32명, 6학년: 29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가. 자아개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개념은 송인섭(1990)이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문항에서 '그렇다'에 대한 반응은 2점, '아니다'에 대한 반응은 1점을 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게 되어 있다. 이 검사는 일반자아, 학업자아, 사회자아, 정서자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

2~.86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나. 진로발달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발달은 이종범(2005)이 개발한 진로발달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인식, 학업·직업탐색, 진로계획의 3개 영역과 자아개념 인식, 자기특성 이해, 대인관계 인식, 진로와 학습과의 관계 인식, 일과 자신·사회와의 관계 인식, 진로정보 이해·활용, 의사결정과정 이해, 생애역할 계획, 진로계획과정 이해의 9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6이며 진로발달검사의 영역과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구분	학년			성별		전체
	4	5	6	남	여	
다문화	28	27	31	36	50	86
일반	33	32	29	44	50	94
전체	61	59	60	80	100	180

표 2. 자아개념검사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측정내용	문항수	신뢰도
일반자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81
학업자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8	.86
사회적 자아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17	.82
정서적 자아	52, 53, 54, 55, 56, 57*, 58*, 59*, 61*, 60, 62, 63, 64, 65*	14	.72

\*는 역채점 문항임

표 3. 진로발달검사의 문항구성

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아인식	자아개념 인식	1, 2, 3	3	0.787
	자기특성 이해	4, 5, 6, 7	4	
	대인 관계 인식	8, 9, 10	3	
학업·직업탐색	진로와 학습과의 관계 인식	11, 12	2	0.844
	일과 자신·사회와의 관계 인식	13, 14, 15	3	
	진로정보 이해·활용	16, 17, 18, 19, 20, 21, 22, 23	8	
진로계획	의사결정과정 이해	24, 25, 26	3	0.911
	생애역할 계획	27, 28, 29, 30, 31	5	
	진로계획과정 이해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10	

#### 자료 분석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차이를 검증하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했으며,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고,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상관관계와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stepwise 방식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가.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성별, 학년별 차이

1)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차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은 총점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일반가정 학생의 평균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진로발달의 경우 총점과 학업·직업탐색 영역( $t=-1.991$ ,  $p<.05$ )에서 일반가정 학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점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2)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성별 차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에서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5> 진로발달의 경우 총점( $t=-3.371$ ,  $p<.01$ )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개념의 경우는 사회적 자아( $t=-2.032$ ,  $p<.05$ )를 제외한 다른 하위영역과 총점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표 4.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자아인식	다문화	86	33.5349	6.19810	.039	.969
	일반	94	33.5000	5.86909		
학업·직업탐색	다문화	86	38.4070	9.58722	-1.991*	.048
	일반	94	41.1596	8.96265		
진로계획	다문화	86	52.7093	13.84355	-1.968	.051
	일반	94	56.6489	13.00927		
진로발달(전체)	다문화	86	124.6512	26.95433	-1.692	.092
	일반	94	131.3085	25.81449		
일반자아	다문화	86	10.3372	3.07403	-1.458	.147
	일반	94	11.0000	3.01965		
사회자아	다문화	86	14.1860	3.36246	-1.134	.258
	일반	94	14.7128	2.86477		
학업자아	다문화	86	9.9419	4.48882	-1.040	.300
	일반	94	10.6596	4.74184		
정서자아	다문화	86	7.1163	2.89185	-1.030	.304
	일반	94	7.5851	3.18737		
자아개념(전체)	다문화	86	41.5814	10.90975	-1.421	.157
	일반	94	43.9574	11.46281		

\*  $p < .05$

표 5.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성별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자아인식	남	36	31.5556	6.54848	-2.596*	.011
	여	50	34.9600	5.57311		
학업·직업탐색	남	36	34.8056	8.93091	-3.102**	.003
	여	50	41.0000	9.27802		
진로계획	남	36	47.3889	13.63457	-3.182**	.002
	여	50	56.5400	12.80180		
진로발달(전체)	남	36	113.7500	26.29218	-3.371**	.001
	여	50	132.5000	24.82695		
일반자아	남	36	9.7500	2.91180	-1.515	.134
	여	50	10.7600	3.14649		
사회자아	남	36	13.3333	3.81725	-2.032*	.045
	여	50	14.8000	2.87849		
학업자아	남	36	9.8611	4.67915	-.141	.888
	여	50	10.0000	4.39387		

조봉환

정서자아	남	36	6.7500	2.33452	-.997	.322
	여	50	7.3800	3.23179		
자아개념 (전체)	남	36	39.6944	11.15301	-1.368	.175
	여	50	42.9400	10.63573		

\*  $p < .05$  \*\*  $p < .01$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에서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6> 일반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에서의 성별 차이는 학업자아의 평균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을 뿐 총점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학년별 차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7> 진로발달 총점( $p < .05$ )과 진로발달의 하위영역 중 진로계획( $p < .05$ ) 측면에서 5학년이 4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성별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자아인식	남	44	32.9318	6.00154	-.879	.381
	여	50	34.0000	5.76407		
학업직업탐색	남	44	40.8409	8.79467	-.322	.748
	여	50	41.4400	9.18775		
진로계획	남	44	55.2500	13.05645	-.978	.331
	여	50	57.8800	12.97351		
진로발달 (전체)	남	44	129.0227	25.63744	-.804	.424
	여	50	133.3200	26.06071		
일반자아	남	44	10.5455	2.89711	-1.376	.172
	여	50	11.4000	3.09707		
사회자아	남	44	14.3182	3.05586	-1.257	.212
	여	50	15.0600	2.66810		
학업자아	남	44	10.7727	4.51799	.216	.830
	여	50	10.5600	4.97406		
정서자아	남	44	7.0909	3.13137	-1.418	.160
	여	50	8.0200	3.20389		
자아개념 (전체)	남	44	42.7273	10.90842	-.976	.332
	여	50	45.0400	11.9334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표 7.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학년별 차이

구분	4학년(n=28) M(SD)	5학년(n=27) M(SD)	6학년(n=31) M(SD)	F	p	scheffe 사후검증	
진로 발달	자아인식	33.00 (6.62)	34.26 (5.86)	33.39 (6.20)	.293	.747	
	학업직업 탐색	35.07 (8.02)	41.11 (10.20)	39.06 (9.74)	2.973	.057	
	진로계획	46.50 (11.45)	57.26 (13.77)	54.35 (14.24)	4.90 7*	.010	4학년<5 학년
	전체	114.57 (22.26)	132.62 (27.94)	126.81 (27.91)	3.425 *	.037	4학년<5 학년
자아 개념	일반자아	9.57 (3.02)	11.07 (3.19)	10.39 (2.95)	1.675	.194	
	사회자아	13.14 (3.45)	15.04 (2.55)	14.39 (3.74)	2.339	.103	
	학업자아	9.64 (3.84)	10.07 (4.87)	10.09 (4.72)	.090	.914	
	정서자아	7.07 (3.32)	7.63 (2.99)	6.71 (2.37)	.731	.485	
	전체	39.43 (10.87)	43.81 (11.11)	41.58 (10.73)	1.114	.333	

\*  $p < .05$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8> 자아개념 총점( $p < .05$ )과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 일반적 자아

( $p < .05$ )에서 4학년이 6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학년별 차이

구분	4학년(n=28) M(SD)	5학년(n=27) M(SD)	6학년(n=31) M(SD)	F	p	scheffe 사후검증	
진로 발달	자아인식	33.64 (6.71)	33.81 (4.97)	33.00 (5.93)	.157	.855	
	학업직업 탐색	39.94 (10.68)	41.41 (8.07)	42.28 (7.83)	.537	.586	
	진로계획	57.24 (15.32)	55.25 (11.86)	57.52 (11.60)	.280	.757	
	전체	130.82 (30.87)	130.47 (22.68)	132.79 (23.48)	.069	.933	
자아 개념	일반자아	11.82 (2.96)	11.34 (2.50)	9.69 (3.26)	4.45 8*	.014	4학년> 6학년
	사회자아	15.18 (2.32)	15.03 (2.49)	13.83 (3.61)	2.071	.132	
	학업자아	11.76 (4.52)	10.47 (4.96)	9.62 (4.63)	1.628	.202	
	정서자아	8.39 (3.40)	7.68 (2.50)	6.55 (3.42)	2.698	.073	
	전체	47.15 (10.85)	44.53 (10.00)	39.69 (12.65)	3.51 1*	.034	4학년> 6학년

\*  $p < .05$



나.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간의 상관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간의 상관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9>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은 자아개념과 상관이 매우 높았으며( $r=.594, p<.01$ ), 진로발달 총점과 자아개념의 4개 하위영역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학업적 자아개념( $r=.536, p<.01$ )과 일반적 자아개념( $r=.511, p<.01$ )이 정서적 자아개념( $r=.401, p<.01$ )과 사회적 자아개념( $r=.399, p<.01$ )에 비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발달의 하위영역과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들과의 상관을 보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인 자아인식( $r=.538, p<.01$ ), 학업직업탐색( $r=.437, p<.01$ ), 진로계획( $r=.500, p<.01$ ) 모두 학업적 자아개념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인식 영역이 전체 자아개념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r=.610, p<.01$ ).

2)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간의 상관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10> 일반가정 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개념의 상관은 매우 높았다( $r=.516, p<.01$ ). 진로발달 총점과 자아개념의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자아개념을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학업적 자아개념( $r=.507, p<.01$ )과 정서적 자아개념( $r=.503, p<.01$ )이 일반적 자아개념( $r=.466, p<.01$ )에 비해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진로발달의 하위영역과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인 자아인식은 정서적 자아개념과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r=.584, p<.01$ ), 학업·직업탐색은 학업적 자아개념과 가장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 $r=.437, p<.01$ ), 진로계획은 정서적 자아개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r=.460, p<.01$ ). 또한 자아인식 영역이 전체 자아개념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 $r=.590, p<.01$ ).

표 9.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상관관계 (n=86)

구분	자아인식	학업 직업 탐색	진로 계획	진로 발달 (전체)	일반 자아	사회 자아	학업 자아	정서 자아	자아 개념 (전체)
자아인식	1								
학업직업탐색	.656**	1							
진로계획	.663**	.802**	1						
진로발달(전체)	.803**	.918**	.951**	1					
일반자아	.523**	.420**	.470**	.511**	1				
사회자아	.433**	.309**	.368**	.399**	.504**	1			
학업자아	.538**	.437**	.500**	.536**	.614**	.431**	1		
정서자아	.409**	.321**	.375**	.401**	.530**	.382**	.483**	1	
자아개념(전체)	.610**	.478**	.551**	.594**	.830**	.729**	.845**	.731**	1

\*\*  $p<.01$

표 10.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상관관계 (n=94)

구분	자아 인식	학업 직업 탐색	진로 계획	진로 발달 (전체)	일반 자아	사회 자아	학업 자아	정서 자아	자아 개념 (전체)
자아인식	1								
학업직업탐색	.725**	1							
진로계획	.703**	.852**	1						
진로발달(전체)	.833**	.942**	.960**	1					
일반자아	.504**	.410**	.414**	.466**	1				
사회자아	.220*	.146	.144	.173	.526**	1			
학업자아	.581**	.437**	.444**	.507**	.623**	.462**	1		
정서자아	.584**	.398**	.460**	.503**	.655**	.455**	.695**	1	
자아개념(전체)	.590**	.436**	.457**	.516**	.835**	.706**	.887**	.852**	1

\*  $p < .05$  \*\*  $p < .01$

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자아,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서적 자아개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발달 총점과 하위영역인 자아인식, 학업직업

탐색, 진로계획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발달 총점을 학업적 자아개념과 일반적 자아개념이

표 11.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2$	Adj $R^2$	F
자아인식	학업자아	.742	.538	5.845***	.289	.281	34.169***
	학업자아	.481	.348	3.103**	.349	.333	22.222***
	일반자아	.623	.309	2.755**			
학업직업 탐색	학업자아	.934	.437	4.455***	.191	.181	19.843***
	학업자아	1.541	.500	5.288***	.250	.241	27.959***
진로계획	학업자아	1.044	.339	2.896**	.293	.276	17.176***
	일반자아	1.183	.263	2.246*			
	학업자아	3.217	.536	5.816***	.287	.279	33.823***
진로발달 전체	학업자아	2.140	.356	3.157**	.340	.324	21.412***
	일반자아	2.563	.292	2.589*			

\*  $p < .05$  \*\*  $p < .01$  \*\*\*  $p < .001$

32.4%를 설명하였다. 자아인식 영역에 대해서는 학업적 자아개념과 일반적 자아개념이 33.3%를 설명하였으며, 학업직업탐색 영역에서는 학업적 자아개념이 18.1%를 설명하고 있으며, 진로계획 영역에서는 학업적 자아개념과 일반적 자아개념이 2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발달에 대해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서적 자아개념이 28.6%를 설명하였다. 자아인식 영역에 대해서는 정서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아개념이 38.7%를 설명하였으며, 학업직업탐색 영역에서는 학업적 자아개념이 18.2%를 설명하고 있으며, 진로계획 영역에서는 정서적 자아개념이 20.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은 총점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일반가정 학생의 평균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재분(2008)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일반 학생보다 낮다는 결과와는 같으나 사회적 자아개념이 일반가정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로발달의 경우 총점과 학업·직업탐색 영역( $p<.05$ )에서 일반가정 학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점과 다른

하위영역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아

표 12.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Adj R <sup>2</sup>	F
자아인식	정서자아	1.076	.584	6.906***	.341	.334	47.687***
	정서자아	.644	.350	3.097**	.400	.387	30.384***
	학업자아	.418	.338	.2993**			
학업직업 탐색	학업자아	.826	.437	4.663***	.191	.182	21.744***
진로계획	정서자아	1.879	.460	4.974***	.212	.203	24.742***
진로발달 전체	학업자아	2.762	.507	5.647***	.257	.249	31.893***
	학업자아	1.662	.305	2.505*	.301	.286	19.611***
	정서자아	2.356	.2915	2.387*			

\*  $p<.05$  \*\*  $p<.01$  \*\*\*  $p<.001$

( $p < .05$ )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총점과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 총점과 하위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발달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은 총점( $p < .01$ )과 자아인식( $p < .05$ ), 학업직업탐색( $p < .01$ ), 진로계획( $p < .01$ )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는 연구(이중범, 2005; 조봉환, 임경희, 2001)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가정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총점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평균의 점수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 하위영역 중 일반자아( $p < .05$ )와 총점( $p < .05$ )에서 4학년이 6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진로발달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은 하위영역 중 진로계획( $p < .05$ )과 총점( $p < .05$ )에서 5학년이 4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가정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김옥환, 조봉환, 1998; 신철, 1997; 이중범, 2005)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 전 영역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집단 모두 진로발달과 자아개념은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상관 정도가 약간 높았다. 진로발달과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들과의 상관을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아개념과 일반적 자아개념이 진로발달과 더 관련을 보이는 반면, 일반가정 학생은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서적 자아개념이 더 관련되어 있었다. 두 집단의 학생 모두에게 학업적 자아개념이 진로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아개념이 진로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또한 진로발달의 하위영역들과 자아개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진로인식, 학업·직업탐색, 진로계획 모두 학업적 자아개념과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가정 학생은 정서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아개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숙과 자아개념(학문적자아개념, 정의적자아개념)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곽준규, 구만호, 2000)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 모두 학업적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갖는 영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적 자아개념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는 정서적 자아개

념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자아개념 중 학문적 자아개념과 정의적 자아개념(정서적 적응성이나 성격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관여정도, 진로선택에 대한 기본태도, 독립성, 결정성, 타협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곽준규, 구만호, 2000)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일반가정 초등학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발달의 경우 학업·직업탐색 영역에서 일반가정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 영역에서 평균의 점수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진로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 영역에서 평균의 점수만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자아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 자아개념 총점과 일반적 자

아에서 4학년이 6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진로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발달 총점과 진로계획에서 5학년이 4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집단 모두 진로발달과 자아개념은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상관 정도가 약간 높았다. 진로발달과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들과의 상관을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아개념과 일반적 자아개념이 진로발달과 더 관련을 보이는 반면, 일반가정 학생은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서적 자아개념이 더 관련되어 있었다. 두 집단의 학생 모두에게 학업적 자아개념이 진로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아개념이 진로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또한 진로발달의 하위영역들과 자아개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진로인식, 학업·직업탐색, 진로계획 모두 학업적 자아개념과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가정 학생은 정서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아개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 모두 학업적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공통적

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갖는 영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적 자아개념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는 정서적 자아개념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 중 자아개념만을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성취동기, 학업성취도, 학습흥미, 자아효능감, 내외통제성 등 다양한 개인내적인 변인과 국적, 국내 거주지역,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수준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일본인 27명, 중국인 36명, 필리핀인 8명, 베트남인 8명, 새터민 2명, 우즈베키스탄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 몽골인 1명, 미국인 1명의 전체 86명이다. 행정안전부(2008)에 따른 다문화가정 여성의 국적별 구성을 보면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여성이 24.5%, 중국(조선족) 여성이 54.2%이며, 일본, 대만, 몽골 등 기타지역에서 온 여성들이 20.1%로 나타나 표집대상의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표집지역도 충남, 대전 지역으로 한정되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동질적인 문화권과 연구대상 표집 지역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 공윤정, 박한샘(2009). 아동의 진로발달과 영향 요인. *진로교육연구*, 22(2), 79-100.
- 곽준규(1994). 문화와 환경적 소산으로서의 동양계 미국청소년의 진로발달. *동국논업 인문사회과학편*, 33, 229-263.
- 곽준규, 구만호(200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37-152.
- 김신호, 조봉환, 김옥환, 임경희(2002). 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등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진로교육연구*, 15(2), 123-154.
- 김옥환, 조봉환(1998).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 수준과 기초적성 및 학업흥미와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9, 123-144.
- 김인(2009).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지향점. *초등교육연구*, 22(1), 23-42.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문미숙, 박창언(2009). 다문화 연구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분석. *초등교육연구*, 22(2), 363-386.
- 박상철(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정책. *초등교육연구*, 21(2), 1-19.
- 서범석(2009).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학교다문화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초등교육연구*, 22(4), 1-26.
- 송인섭(1990). *초등학교 고학년용 성격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신철(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안지혜, 강승혜(2009). 초등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초등교육*

- 연구, 22(4), 227~254.
- 이선미, 이선화(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상담학연구*, 10(4), 2273~2286.
- 이영대(2001). 초등학생에 대한 진로요구도 조사와 진로지도 방향. *진로교육연구*, 13, 187~201.
- 이재분(2008).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창(2005).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문음사.
- 이종범(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 논문.
- 장인실(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2), 281~305.
- 장인실, 유영식(2010). 다문화 교육 모형과 교과서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법의 효과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23(1), 141~161.
- 정철영(1999). 진로지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편), 직업교육훈련 대사전(pp 538-540).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봉환, 임경희(2000).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 태도와 내외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구. *진로교육연구*, 11, 241~268
- 조영달 등(2006).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용역과제 보고서.
- 통계청(2010). 2010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 행정안전부(2008).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결과. 행정안전부.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Starishevsky, R., Matlin, N., & Jordaan, J. P. (Eds.) (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 원 고 접 수 일: 2010년 7월 30일
  - ◆ 수정원고접수일: 2010년 9월 11일
  - ◆ 게재승인일: 2010년 9월 17일

## Self-Concept and Career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Bung-Hwan Cho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0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career development within two group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self-concept and career development. Also, it was to investigate the self-concept's effects on career develop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from general families showed higher academic-occupational exploration than those in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the self-concept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career development in both groups. And there were stronger correlation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rd, the regression analyses of two groups showed that academic self-concept had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development in both groups, but there were higher effect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lf-concept, career development, multi-culture, elementary school children*